

# 간편식으로 구현한 고향의 맛… 건강 챙기고 농촌도 살린다

##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표 복 열 하늘채푸드 대표

어머니가 해주시던 고향의 맛을 재현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이가 있다.

시래기, 시금치, 아욱 등을 이용한 국은 누구나 수월하게 끓일 수 있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음식 중 하나다.



국, 죽 등 30여종… 온·오프 판매  
“농촌 소득↑… 일자리 창출 목표”  
온라인서 ‘표복열쉐프’로 입소문

그럼에도 자연이 주는 이들 식재료는 최근 들어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이 늘면서 찾는 이도 증가하고 있다.

하늘채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쉐프 겸 창업자 표복열 대표는 여기서 답을 찾았다. “건강식을 찾는 트렌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음식을 만들며 수 많은 식재료를 접해왔고, 음식 프랜차이즈 등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최대한 먹기 좋고 간편한 건강식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언젠간 반드시 하고 싶었다.”

표 대표가 이런 꿈을 갖고 2년 가량 공들여 선보인 것이 시래기된장국, 가마솥시래기국, 가마솥시금치국, 가마솥아욱국 등이다.

이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하



하늘채푸드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재료를 담고 있다.

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에게 맛 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탄생한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독’을 ‘약’으로 바꿀 자신감이 있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판단했다.

그래서 표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에 가공공장부터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채용했다. 특정 계절엔 구하기 쉽지 않은 시래기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냉동건조기법을 본인이 직접 착안해 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표 대표가 HMR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만든 제품은 ‘○○○국’ 뿐만 아니라 시래기를 활용한 추어탕, 장어탕 그리고 한돈불고기, 고추장불고기 등 종류만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도 꿈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인용이나 2~3인용을 위한 소포장용기에 시래기, 아욱, 시금치 등과 함께 된장 등 양념을 곁들여 제조·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물만 부워 끓이면 밥 한공기는 뚝딱이다.

“한때는 시래기를 먹지 않고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농사지은 배추를 팔지 못해 갈아엎던 풍경도 자주 접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90개에 가까운 대파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표 대표가 식품 제조에 뛰어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농촌에서 노인들이 어렵게 키운 농산물이 제값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해보자고 마음먹고 일을 벌인 것이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채소 등 식재료가 그냥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지

## 창진원, ‘안전보건 스타트업’ 발굴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약  
안전보건 인식 제고·교육 협조

창업진흥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스타트업 안전보건인식 제고’에 나선다.

15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맺은 업무협약은 스타트업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양측이 공감해 추진하게 됐다.

업무협약에는 ▲스타트업 안전보건 인식 제고 ▲스타트업 안전보건 교육 공동 추진 ▲산업재해 예방 분야 스타트업 공동 발굴 ▲산업재산권 무상 제공·홍보 ▲기타 양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의 협력 기반 마련 등의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왼쪽 4번째)이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생분해성 PLA 스판본드 부직포 첫 생산

유진한일합섬, 국내 첫 생산

유진그룹의 섬유제조계열사인 유진한일합섬이 국내 최초로 친환경 생분해성 PLA(Poly Lactic Acid) 스판본드 부직포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판매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PLA 스판본드 부직포를 양산하는 곳은 유진한일합섬이 유일하다.

15일 유진한일합섬에 따르면 친환경 생분해성 PLA 스판본드 부직포 브랜드인 ‘GREENBON’은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옥수수인 NON-GMO PLA를 원료로 하고 있다. GREENBO

/김승호 기자

## 얼음정수기 소송서 청호나이스 특허 인정

향후 대법원 최종 판단 따라 ‘희비’

‘얼음정수기’를 놓고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진행하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단 청호나이스 특허를 인정했다.

다만 두 기업간 특허소송은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

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코웨이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얼음정수기에 대한 것이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김승호 기자

## 광군제서 휴롬 원액기 1만6000대 팔았다

휴롬 원액기가 중국에서 또한번 각광을 받고 있다. 휴롬은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서 총 1만6000대, 금액으로는 65억원 어치를 판매하며 글로벌 건강주방가전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광군제에는 총 29만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휴롬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지난해 3월 출시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지 시리즈’ 원액기가 실적을 이끌었다.

/김승호 기자

## 360개社 제품 입점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 들어선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3곳을 열고 제품 홍보·판매를 시작했다.

전용판매장에 입점한 기업은 추가비용 없이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력 등 일체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판매도 함께 연계 지원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내 전용판매장은 지난 7월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권을 취득해 최소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면세점 중 최저수준의 수수료(23%)가 적용된다. 인천공항 전용판매장에는 유망 중소기업 360개사의 제품이 입점했다.

중기부는 구매자 수요를 반영해 소형가전, 패션잡화, 아이디어 제품 등 신규상품을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경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매장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이라며 “인천공항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만배, 검찰조사 또 불출석…정민용  
·남욱은 소환

/사진 뉴시스

▲ 한정애 “요소수 하루 50만L 공급중  
…60만L 시 불안감 해소”

▲ ‘집행유예증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월…“반성 않고 책임 전가”

▲ 접종완료 4010만명 ‘인구 78.1%’…  
50대 부스터샷 돌입



▲ 수도권 중환자 병상 4개중 3개이상  
‘사용중’…병상 부족 현실화

▲ 당국 “내년 1월까지 철새유입 증가…  
가금류 고병원성 AI 위험 커” /사진 뉴시스